

2022년 11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우리들의 행복한 마을이야기

제27호



사진 <사천행복교육지구 나눔마당축제 체험부스>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 OFFICE OF EDUCATION

[발행]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담당

[편집] 성정은 / 문의 : 055.268.1523

1. 행복교육지구 소식 모아모아

2. 민·관·학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 한마당

3. 인터뷰 - 양산 영천초등학교 김홍표 교사

TOP NEWS

진주교육지원청, 미래형 배움터 '하모나래 학교' 개관식 열어



진주 하모나래학교 개관식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외숙)은 10월 28일 망경초등학교 별관동에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형 배움터 '하모나래학교' 개관식을 실시하였다. 하모나래학교는 지역민 공모로 선정된 진주행복마을학교의 또 다른 이름으로 진주시 캐릭터 '하모'와 날개를 펼치다는 '나래'의 합성어로 밝게 꿈을 향해 날아가자는 의미로 지역민이 지어준 이름이다. 하모나래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열린 배움터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형 마을학교로 운영된다.

하모나래학교는 학교연계 프로젝트와 지역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자치배움터 등으로 교육공동체,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의 박종훈 교육감은 "하모나래학교가 진주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모나래학교 개관식 소감을 밝혔으며, 진주교육지원청 이외숙 교육장은 "하모나래학교라는 이름처럼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치는 공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고성의 미래, 교육자치를 알리는 고성미래교육지구



고성미래교육지구는 2022년 10월 14일(금) 고성 당항포 일원에서 개최된 경남고성공룡엑스포 행사장에서 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찾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나만의 반려 공룡 식물만들기' 체험 활동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고성미래교육지구에서 주관하는 홍보부스는 고성군의 대표적인 행사인 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참가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고성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고성미래교육지구의 교육자치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운영되었다.

고성미래교육지구 홍보부스는 지역민과 학교, 지자체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고성미래교육지구 실무자 및 지역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홍보부스 운영 전반을 추진하였다.

체험 활동은 고성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공룡'을 활동 소재로 활용하였으며, 생태교육전환에 맞추어 공기 정화 식물로 공룡 문양 반려 식물 만들기 활동을 운영하였다. 고성미래교육지구 홍보부스 체험 활동에 참여한 지역민은 "홍보부스를 통해 고성교육지원청과 고성군청이 함께 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교육자치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돌여울마을학교의 "복적복적 돌여울장"



양산 돌여울마을학교는 11월 12일(토) 오전10시부터 13시까지 양산 상북 석계 전통시장 안에서 '복적복적 돌여울장'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돌여울마을학교는 상북초 학교협력형마을학교로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즐겁고 신나는 체험활동과 공연을 기획하였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5개 학교(상북초·좌삼초·소토초·양주중·양산희망학교 등)가 연합하여 알뜰시장과 체험부스, 학교별 축하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드립백 만들기, 쥐불놀이 등 다양한 체험으로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등 학교와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진 마을축제가 되었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

경남교육청은 10월 27일(목)부터 남해, 창녕행복교육지구 나눔마당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각 지역에서 행복교육지구 나눔마당을 개최한다.

경남행복교육지구 나눔마당은 2022년 한 해 동안의 행복교육지구의 활동 성과를 나누고 마을교육공동체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행복한 배움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 민과 관이 함께 협업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부스체험과 공연 행사 등을 펼친다. 특히 이번 나눔마당은 올해부터 경남 18개 지역이 모두 행복교육지구가 되어 가지는 더욱 뜻깊은 시간이다.

사천행복교육지구 나눔마당 행사 체험 부스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성과 나눔 한마당에 오니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체험활동이 많아 호기심이 생겼다"면서, "부스체험도 신기하고 좋았지만, 놀이마당에서 공기놀이도

하고 제기차기, 신발 던지기 등의 야외 놀이가 정말 재미있었다.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고 앞으로 마을학교 수업에 적극 참가하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10월 27일(목)~28(금) # 따오기 창녕행복교육지구 # 우포늪 생태체험장
학교와 마을의 행복한 동행! 미래를 품은 으뜸 창녕인 육성



10월 27일(목)~28(금) # 보물섬남해행복교육지구 # 남해실내체육관
지역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마을학교 운영



10월 29일(토)~30(일) # 창원행복교육지구 # 창원 컨벤션센터
소통과 협력의 온마을 배움터



11월 18일(금) # 천왕봉행복교육지구 # 산청군 체육관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리산 꿈마을

거창행복교육지구



11월 7(월) # 거창행복교육지구 # 아림고등학교 중앙공원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거창마을교육공동체

함양행복교육지구



11월 11일(금)~12일(토) # 함양행복교육지구 # 함양문화예술회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배움과 성장의 함양행복교육지구

거제행복교육지구



11월 5일(토) # 거제행복교육지구 # 봉산 월빙공원 #연초고등학교
푸른 꿈을 찾아 마을로 떠나는 행복한 거제 여행

함안행복교육지구



11월 12일(토) # 함·안·애 행복교육지구 # 함주공원 다목적잔디구장
함께 성장하는 아라가야풍 안

통영행복교육지구



11월 12일(토) # 통영행복교육지구 # 통영중학교 체육관
학교, 마을의 통통(統通)한 꿈이 지속가능한 통영

사천행복교육지구



11월 12일(토) # 사천행복교육지구 # 청소년수련관
마을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프로젝트 운영

고성행복교육지구



11월 12일(토) # 고성행복교육지구 # 고성국민체육센터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꿈키움 마을학교

진주행복교육지구



11월 19일(토) # 진주행복교육지구 # 진주교육지원청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마을학교 운영

“함께 나누는 기쁨, 사회적 경제”

우리를 성장시키는 작두콩의 마법은 현재진행형이다.

〈인터뷰 - 양산 영천초등학교 교사 김홍표〉

Q. <사회적 경제교육> 활동으로 작두콩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영천초등학교는 농촌에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영천초가 행복학교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녹색효과를 줄 수 있는 그린커튼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양산농업기술센터에서 작두콩을 분양한다기에 우리 학교에 작두콩을 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심은 콩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며 이 작두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방학동안 전교생이 참여하는 여름캠프를 2주간 실시하였는데 그때 학생들과 함께 작두콩에 얹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작두콩 캐릭터인 ‘두콩’이를 각목에 꾸미기도 하고, 전교생이 작두콩 껍질차 만들기에 참여하여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껍질차를 팔아서 생긴 수익으로 6학년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요.

이것을 발판으로 색다른 메뉴를 찾아보던 중 이번에 열리는 2022. 부산경남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 ‘작두콩누룽지과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자랑스럽게도 우리가 발표한 ‘작두콩누룽지과자’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Q. 작두콩으로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못 했죠. 저희가 학생들과 비즈니스 스쿨!, 즉 ‘비즈쿨’을 하거든요. 작두콩 뿐만이 아니라 전교생이 딸기체험도 하고 표고버섯, 토마토, 고구마, 양파, 감자 등을 심으며 작은 텃밭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뒤에 대나무도 많은데 대나무 죽순을 뜯어서 급식소에 주면 학교 급식으로도 나오구요. 텃밭에서 키운 것을 급식소에 제공해 주면 학생들이 그걸로 식사를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학교가 올해 행복학교 운영 1년 차거든요. 이를 연계해서 보다 더 확장시킬 방안을 고민해보니 앞으로 비즈쿨을 더 강화시키고, 관련 교내 시설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장선생님께서도 앞장서고 계시고 선생님들 역시 학생들과 열심히 행복한 학교를 가꾸고 있습니다.

Q. 작두콩 키우기는 김홍표 선생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건가요?

네, 영천초가 46회 졸업생인 저의 모교인데요. 여기서 제가 6년째 근무 중이에요. 사실 우리 학교가 한 때는 폐교 직전이었는데요. 학교를 살리기 위한 모두의 노력으로 지역민과 학교 총동창회의 지원도 받게 되었고 행복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죠. 현재 교장선생님과 전교직원이 노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처음 작두콩 재배하자 했을 때 학생들 반응은 어땠나요?

식물 재배를 하니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좋아해요. 분양을 받으면 전교생 잔치가 돼요. 사각통에 자기 이름을 걸고 그걸 애들이 직접 심어요. 5월 말쯤 심기 시작하면 6월 중순쯤 되면 학생들 키만큼 작두콩이 자라요. 내 키가 큰지 작두콩 키가 큰지 견주어도 보고요.

학교에 오면서 작두콩 열매가 열렸는지, 꽃이 폈는지 살피고 관찰하니까. 봄에는 키 자랑을 하지요. 서로 내 콩이 컸다 하면서.



Q. 작두콩 키우면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작두콩을 씻어서 잘라서 건조를 시키고 구증구포를 하거든요.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립니다. 이게 교실에서 말리면 그 냄새가 구수하니까 전체 교실에 다 퍼지고요. 여름철에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니깐 벌들이 들어올때가 있어요. 벌이 들어오면 “벌들도 공부하고 싶어서 우리 교실을 들어오는데 너희들도 미래를 그리면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곤 했죠.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고 행사 참여할 때 또 착실히 앞장서고! 우리 반 애들이 참 착합니다.(웃음)

Q. 앞으로 관련 활동 있나요?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1월에 있는 학교 총동창회 주최 마을 체육대회에 작두콩도 한 번 팔아보려고요. 교육은 그리 생각해요. 선생님의 정성만큼 학생들은 커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주느냐, 어떤 철학을 갖게 하느냐.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반 학생들에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착하고 바르게 크는 우리 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